

이슈브리프

No. 2026-19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전략적 계산

이동규 선임연구위원

2026-06-18

2026년 5월 14일 베이징(北京)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 미국 내 전쟁 권한 논란 등으로 외교적·정치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얻고자 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 필요를 적극 활용해 항공기, 농산물, 시장 접근 등 경제 분야에서 제한적 양보를 제공하는 대신, 미중관계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建設性戰略穩定關係)'로 규정하고 대만 문제와 핵심이익 존중을 미중관계 관리의 원칙으로 제시하며 장기적으로 미중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미중관계의 안정화를 통한 전략적 시간 확보, 대만 문제의 전면화를 통한 중일관계 및 양안관계 우위 확보, '세계 다극화' 수사를 활용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모색이라는 전략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한편, 미중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프레임을 국제사회에 확산해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들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억제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한미동맹 결속력 강화로 대중국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중국은 지역 내 미국 동맹국의 대중 견제 동참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중관계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내세우며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견고할수록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한국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만 문제에 대한 유사입장국들(like-minded countries)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중 간 중요 의제로 제기한 만큼 향후 대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을 고려할 때, 중국은 한국에 일본의 대만 문제 관여와 역할 확대를 경계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 한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국제법과 규범 준수라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천명하되, 유사입장국들과의 다자협력체나 공동 성명을 활용함으로써 대중 압박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의 북한 편들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계 다극화'를 명목으로 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은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함께 미북대화나 북핵 문제를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평가

2026년 5월 13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14일에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하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미중 양국이 미국-이란 전쟁, 에너지 안보, 대만 문제, 북핵 문제 등 산적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차담회를 이어가며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시급한 글로벌 난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도 없이 끝나면서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측 발표 내용을 비교하면, 양국은 자신이 필요한 성과를 주고받는 거래적인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가 이룬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가 2017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음을 강조하고, 경제

분야에서 미중 무역위원회 및 투자위원회 설립, 중국의 미국산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승인,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매, 미국산 쇠고기와 가금류 시장 접근 회복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¹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급등, 미국 내 전쟁 권한 논란 등으로 외교적·정치적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회담 이후 백악관이 중국의 양보와 경제적 성과를 강조한 것을 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과시할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만들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 거래보다는 미중관계가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임을 부각하며 미중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려고 노력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에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새로운 관계 설정으로 삼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안정적 관계 관리를 통해 향후 3년 및 그 이후의 미중관계에 전략적 지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규정하고,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² 이를 볼 때, 중국은 미국의 정치적 필요를 적극 활용해 항공기, 농산물, 시장 접근 등 경제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신에, 미중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대만 문제와 핵심이익 존중을 미중관계 관리의 핵심 원칙으로 제기함으로써 미국의 대중 압박을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이 미국의 정치적 필요를 역이용하여 미중관계와 대만 문제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중국의 우위가 중국의 국력이나 전략이 미국을 압도해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라는 대외 변수와 중간선거 등의 국내정치적 압박으로 약화된 데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중간선거와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라는 조건 속에서 올해의 미중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대내외적 부담으로 인해 중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미중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자신의 글로벌 영향력과 대미 지렛대(leverage)를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중국의 전략적 계산

1. 미중관계의 안정화를 통한 전략적 시간 확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방점을 둔 것은 미중관계의 안정화였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안정적 관계 관리를 통해 향후 3년 및 그 이후의 미중관계에 대한 원칙적 방향, 즉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³ 이것은 얼핏 보기에 시진핑 1기에 중국이 제기했던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신형대국관계가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수용해야 한다는 선언적 요구의 성격이었다면, 이번에 제기된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미중 경쟁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미중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을 완화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10월 부산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미중관계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추진할 때,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로 맞대응했고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서 관세 유예를 얻어냈다. 이를 계기로 중국 내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을 이겨내고 존중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조건에서 미중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형성됐다. 심지어 중국이 미중관계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⁵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하 왕이)은 2025년 12월 30일에 개최된 '국제정세와 중국외교' 세미나 연설에서 미중 간 호혜적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강조하면서⁶ 미중관계를 새롭게 도모해 나갈 의지를 피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제기한 것은 미중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보고(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와 국가방위전략보고(National Defense Strategy, NDS)를 통해서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기존의 동맹체제를 넘어 에너지, 첨단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할 의지를 드러냈다.⁷ 경기 둔화,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부채, 청년실업, 기술자립, 군사 현대화 등 대내외 과제에 직면한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중관계가 안정화되지 않고 충돌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중국은 경제·기술·외교·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의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시진핑 및 중국공산당의 권력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표출되며 중국 사회 및 정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2027년 중국공산당 제21차 당대회에 4연임을 모색해야 하는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미중관계가 '건설적 전략 안정'의 틀 안에서 관리된다면,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G2 국가임을 선전하며 국내 정치의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술자립 및 군사 현대화를 추진할 시간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미중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미 동맹 및 협력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미중관계를 안정화시키고 협력 구도로 가져가려는 것은 국내 정치를 안정화하고 미국의 대중 압박에 대한 대응수단을 마련할 전략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향후 3년 및 그 이후"라는 표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남은 임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러 정상회담, 중국-파키스탄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했다. 특히, 시진핑은 6월 8~9일,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것은 올해 시진핑의 첫 해외 일정이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미북대화 등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글로벌 이슈와 직접 연결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 5월 현재 트럼프의 임기가 약 3년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임기 동안 중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이를 지렛대로 사용하며 미중관계를 '건설적 전략 안정'이라는 관리 가능한 틀 안에 묶어 두려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건설적 역할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북한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중 간 우호관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대만 문제 전면화를 통한 중일관계 및 양안관계 우위 확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중 간의 핵심 의제로 제기했다.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대만 문제는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히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며, 미중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다.⁸ 왕이 역시 "대만 문제가 중국 내정이며, 미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⁹ 준수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¹⁰ 또한, 귀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반대한다고 언급했다.¹¹ 이렇게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중관계의 전면에 내세우고 미국의 신중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에는 다음과 같이 대만 문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대만 정책을 견제하는 외교적 명분을 쌓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작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111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다.¹²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중관계의 주요 의제로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거나 고위급 교류를 추진할 경우, 중국은 이를 단순한 미-대만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정상 간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대만 문제를 미중관계 안정화와 연결함으로써 미국의 대만 관여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026년도는 시진핑의 방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및 G20 회의 등으로 여러 차례의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외교적, 경제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 중국의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나 정치적 지지를 중간선거 전까지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양안관계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미 동맹의 대만 문제 개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도한다. 2025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Takaichi Sanae)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 사태가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¹³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재개, 이중용도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의 대일본 수출 금지 시행, 일본 주요 인사 제재 등을 시행했다.¹⁴ 이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이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미국 동맹체제의 역할 확대로 발전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¹⁵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이 대만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면,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관여 의지는 미국의 대중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독자적 긴장 고조 행위로 보일 수 있다. 2월 14일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에서 왕이는 일본의 대만 관련 발언을 일본의 야욕과 군국주의 부활

의지이자 중국의 주권과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다.¹⁶ 즉, 미국이 대만 문제에 거리를 둘수록 중국은 일본의 대만 문제 관여 의지를 지역 내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독자 행위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 등 역내 동맹이 대만 문제에 관여할 여지를 제한할 것이다.

셋째, 대만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이하 민진당)의 정치적 고립을 유도해 양안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2025년 12월 말에는 중국국민당(Kuomintang, 이하 국민당)과 대만민중당(Taiwan People's Party, 이하 민중당)이 제출한 대만 정치사상 최초의 현직 총통 탄핵안이 대만 입법원을 통과했다.¹⁷ 비록 2026년 5월에 부결됐지만, 이것은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매우 낮음을 방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2026년 11월에 예정된 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라이칭더 정부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다층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025년 4월과 12월의 대만 봉쇄 훈련, 2026년 4월 시진핑-정리원(鄭麗文) 국민당 주석 회담 등을 통해서 중국은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와 양안관계 악화의 책임을 라이칭더 정부에게 전가하고, 대만해협의 안정과 양안 교류를 위해서 민진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대만에 보내고 있다.¹⁸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해서 상세하게(in great detail) 논의했다고 밝혔는데,¹⁹ 이는 미국의 대만 6개 보장(Six Assurances to Taiwan) 중 하나인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어긴 것으로 인식되면서 대만의 우려를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중국은 이를 통해서 대만의 대미 불만과 불신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이를 기반으로 대만에 대한 여론전과 심리전을 확대한다면 라이칭더 정부에 대한 대만 내부 여론을 악화시켜 대만 정치를 중국에게 유리하게 조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3. '세계 다극화' 수사를 활용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모색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중관계를 재설정하려고 시도하면서 미중관계가 양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수사는 중국이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G2 차원의 대등한 강대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미중관계가 안정 단계에 들어갔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제3국들이 중국과 협력할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중국이 중동,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유럽,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미국의 동맹 체제 밖에서 자신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Governance Initiative) 등 다양한 글로벌 담론을 제기하고, 다자주의, 유엔 헌장 수호, 상호존중, 공동발전, 글로벌 사우스 협력 등을 강조하며 중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열린 중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다.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세계 다극화'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시진핑은 5월 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관계 발의에 관한 공동성명(關於倡導世界多極化和新型國際關係的聯合聲明)'을 발표했고,²⁰ 6월 8일 방북 시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수호하고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²¹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입장, 그리고 미국-이란 전쟁 이후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공동으로 다극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위를 부각하며 중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의 이익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NSS와 NDS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성과를 도출해 국내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거래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전쟁 피로도, 중간선거 부담 등 여러 도전에 직면했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국내정치적 필요에 따라 경제적 거래와 협상을 병행하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인식한다. 향후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필요와 거래적 성향을 활용해 경제 분야에서 제한적 양보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고 미중관계가 충돌 국면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이익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은 미중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국제사회에 확산함으로써, 한국, 일본, 유럽,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게 미국의 대중 견제에 편승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대중 견제 참여가 각국의 경제 이익과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 동맹체제의 결속을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도적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1. 한미동맹 결속력 강화로 대중국 지렛대 확보

미중관계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 상황은 역설적으로 한국에 대한 미중 각국의 압박을 높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전략을 고려할 때, 미국은 중국과 거래하면서도 동맹국에게 대중 견제의 역할과 비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역 내 미 동맹의 대중 견제 동참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중관계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내세우며 한국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견고할수록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한국의 발언권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조급함을 내비치며 미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그리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범위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보에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중국의 압박을 차단해야 한다.

2. 대만 문제에 대해 유사입장국들과의 공조 강화

중국이 대만 문제를 미중 간 중요 의제로 제기한 만큼 향후 대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 한국에게 예상치 못한 외교안보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올해 초 한국은 전자입국신고서를 둘러싸고 대만 및 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것이 한국의 대만 정책이나 입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은 중국이 대만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개입 제한을 요구할 뿐 아니라, 한국에게 일본의 대만 문제 관여와 역할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압박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부담을 높일 수 있다. 대만해협이 한국의 안보 및 경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만큼, 한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국제법과 규범 준수라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한국

단독으로 내세우기보다 유사입장국들과의 다자협력체나 공동 성명을 활용함으로써 대중 압박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의 북한 편들기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중국이 중러 및 북중 정상회담에서 '세계 다극화' 담론을 확산하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해 중국에게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이다. 즉, 중국은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 동맹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세계 다극화'를 명목으로 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한다면 미북대화와 남북대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한미 연합훈련 등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제한하려 할 수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도발을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나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반대할 수도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함께 북핵 문제를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¹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2026.05.,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6/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deals-with-china-delivering-for-american-workers-farmers-and-industry/>.

²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外交部發言人就美國總統特朗普訪華情況答記者問," 2026.05.15.,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dhdw_673027/202605/t20260515_11910969.shtml;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王毅向媒體介紹中美元首會晤情況和共識," 2026.05.15., https://www.mfa.gov.cn/wjbzhd/202605/t20260515_11911513.shtml.

³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王毅向媒體介紹中美元首會晤情況和共識," 2026.05.15., https://www.fmprc.gov.cn/web/wjbzhd/202605/t20260515_11911513.shtml;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6年5月14日外交部發言人郭嘉昆主持例行記者會," 2026.05.14.,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202605/t20260514_11910530.shtml.

⁴ Global Times, "More details revealed about the meeting between heads of state of China, US: People's Daily," 2025.10.31., <https://www.globaltimes.cn/page/202510/1347064.shtml>.

- ⁵ 刁大明, “把塑造中美關係和國際秩序的“劇本”掌握在我們自己手中.” 『世界知識』 (2025.08.29).
https://cn.chinadiplomacy.org.cn/2025-08/29/content_118048563.shtml.
- ⁶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王毅出席 2025 年國際形勢與中國外交研討會並作主旨發言,” 2025.12.30.,
https://www.mfa.gov.cn/wjbzhd/202512/t20251230_11790364.shtml.
- ⁷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25.11., p. 2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2026.01.23.,
<https://media.defense.gov/2026/Jan/23/2003864773/-1/-1/0/2026-NATIONAL-DEFENSE-STRATEGY.PDF>.
- ⁸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習近平同美國總統特朗普會談,” 2026.05.14.,
https://www.fmprc.gov.cn/web/zyxw/202605/t20260514_11910264.shtml.
- ⁹ 미중 3 대 공동성명은 상하이 코뮈니케(1972.02.28), 미중수교 성명(1979.01.01), 8.17 공동성명(1982.08.17)이다.
- ¹⁰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王毅向媒體介紹中美元首會晤情況和共識,” 2026.05.15.,
https://www.fmprc.gov.cn/web/wjbzhd/202605/t20260515_11911513.shtml;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6 年 5 月 14 日外交部發言人郭嘉昆主持例行記者會,” 2026.05.14.,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202605/t20260514_11910530.shtml.
- ¹¹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2026 年 5 月 14 日外交部發言人郭嘉昆主持例行記者會,” 2026.05.14.,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202605/t20260514_11910530.shtml.
- ¹² “US announces \$11 billion arms package for Taiwan, largest ever,” *Reuters*, 2025.12.18.,
<https://www.reuters.com/world/china/taiwan-says-us-has-initiated-111-billion-arms-sale-procedure-2025-12-18/>.
- ¹³ 時事通信. “【詳報】台湾有事と存立危機事態を巡るやりとり(2025 年 11 月 7 日),”
<https://www.jiji.com/jc/v8?id=20251107yosan>.
- ¹⁴ 일본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대해서는 연합뉴스, “中, 日에 추가 보복 카드...日수산물 수입 재개 보름만에 또 중지(종합),” 2025.11.19.,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9086852073>;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商務部公告 2026 年第 1 號 關於加強兩用物項對日本出口管制的公告,” 2026.01.06.,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8990fedae8fa462eb02cc9bae5034e91.html;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商務部公告 2026 年第 11 號 公布將 20 家日本實體列入出口管制管控名單,” 2026.02.24.,
https://www.mofcom.gov.cn/zcfb/dwmygl/art/2026/art_f344bbdbfaef487dad12a45bed1c8722.html;
中華人民共和國商務部, “商務部公告 2026 年第 12 號 公布將 20 家日本實體列入關注名單,” 2026.02.24.,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6/art_bac18400512d408a8d4c2f964e36ac11.html;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關於對巖崎茂採取反制措施的決定,” 2025.12.15.,
https://www.fmprc.gov.cn/web/wjbxw_new/202512/t20251215_11772517.shtml;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關於對日本國會眾議員古屋圭司採取反制措施的決定,” 2026.03.30.,
https://www.mfa.gov.cn/wjbxw_new/202603/t20260330_11883241.shtml 를 참고.
- ¹⁵ 최은미 & 이동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갈등과 한국에의 시사점,”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26.01.21, p.7.

¹⁶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ng Yi Reiterates Solemn Position on China-Japan Relations," 2026.02.14., https://www.fmprc.gov.cn/mfa_eng/wjbzhd/202602/t20260217_11860955.html.

¹⁷ South China Morning Post, "Taiwan's lawmakers vote to start impeachment process against William Lai," 2025.12.26, https://www.scmp.com/news/china/politics/article/3337841/taiwans-lawmakers-vote-start-impeachment-process-against-william-lai?module=perpetual_scroll_0&pgtype=article.

¹⁸ 2026 년 4 월 10 일에는 정리원(鄭麗文) 국민당 주석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¹⁹ "Trump Says He and Xi Talked Extensively About Taiwan", The New York Times, 2026.05.14., <https://www.nytimes.com/live/2026/05/14/world/trump-xi-summit-beijing>.

²⁰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習近平同俄羅斯總統普京會談," 2026.05.20., https://www.mfa.gov.cn/zyxw/202605/t20260520_11914167.shtml.

²¹ "習近平在朝鮮媒體發表署名文章," 新華網, 2026.06.08., <https://www.news.cn/world/20260608/11ac586bf3204341a72df954195195ee/c.html>.